

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후서

메시지 16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성경: 고후 13:14, 요일 1:2-7, 9, 계 22:1

- I.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3:14) — 이것은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다.
 - A. 아버지의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환과 전달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공급이다.
 - B. 교회 생활 전체는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하고 영적인 순환에 대한 묘사인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다.
 - C.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내적 순환인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이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
 - D.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날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 시 36:8-9.
- II.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그 안에 지켜야 한다 — 렘 31:3.
 - A.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일 4:19).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20-21).
 - B.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다 — 신 30:19-20, 계 2:4, 7, 아 3:4, 8:13-14.
 - C.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그분과 똑같이 된다. 그 풍성한 속성들에 있어서 넘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같이’ 향기로운 인간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신다 — 고후 2:15.
 - D. 이렇게 ‘예수님 같은’ 인간 미덕들은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지극히 순수함, 최고의 거룩함과 의, 밝음과 올곧음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덕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지적인 생명을 묘사하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이다 — 엡 4:20-21.
 - E.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즉 우리의 생활은 번제물로 예표된 예수님의 인간 생활의 재생산이 된다 — 례 1:4, 13.
 - F. 우리는 모두 주님과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어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애정어리고 내밀하고 영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본질로 충만되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그분의 비추는 요소로 충만되어 다른 이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 — 아 1:1-4, 요 4:24, 눅 15:20, 마 5:15-16.

- G. 주님을 섬기는 이의 인성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보호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인성의 영역과 범위 안에 있도록 지켜준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력적인 분이신 주님에게서 오는 제한을 잃을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 — 딤후 4:10, 14, 엠 4:17-21.

III.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곧 우리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계속 그 안에서 있어야 한다 — 롬 5:2.

- A.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 열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 엠 1:6, 사 50:4-5, 아 8:13, 눅 4:22, 행 20:32, 엠 4:29.
- B.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점진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진정한 하나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내려오는 이슬로 누려야 한다 — 시 133.

IV.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성령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내적 흐름 안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그 안에 지켜야 한다 — 고후 13:14, 민 6:22-27.

- A. 교통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 계 22:1.
- B.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6절과 7절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다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 1.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a.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리킨다.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들이 서로 간에 갖는 교통을 가리킨다.
 - b. 사도들의 초기의 체험은 수직적이었지만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했다.
 - 2.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이다.
 - 3. 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이다.
 - 4. 생명의 교통, 즉 생명의 내적 흐름은 기쁨과 생명의 빛의 내적인 빛비춤, 내적인 다스림을 가져온다 — 요일 1:4-5, 요 1:4, 8:12, 비교 고후 5:13.
- C.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 1.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는다면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료 믿는 이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과 교통을 갖기 어렵다. 그 이유는 신성한 교통은 한 교통이기 때문이다 — 행 2:42.
 - 2.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 교통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영 밖에, 삼일 하나님 밖에, 신성한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 비교 고후 13:14, 고전 1:9, 빌 2:1.
 - 3.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과 가능한 한 많은 교통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틀에 넣고 재조성하기까지 한다. 이 교통은 우리의 영적인 조성 안에 신성한 조성 성분을 가져와 우리의 존재를 변화되게 한다.
- D.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교직된다. 이렇게 교직된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 1.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참된 방식으로 서로 교통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접촉하기를 열망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2. 우리가 성도들과 갖는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와의 수직적인 교통으로 이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갖는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으로 이끈다.

V.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통으로서 오신다.

- A. 전류가 전기 자체인 것과 똑같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 자체이다.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활이다. 결국 이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직되신다. 이렇게 교직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 C. 신성한 교통은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든다. 헬라어로 ‘교통’은 ‘공동 참여’를 뜻하며 이 공동 참여는 하나를 산출한다.
- D. 사실상 교통이 곧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온 우주에는 큰 하나가 있고 이 큰 하나는 신성한 교통이다.
- E.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요 17:22 하)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확대된 하나이다(요 17:21).
- F.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의 실재이다.
 - 1.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시 오지 않으시는(계 22:20) 이유는 믿는 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의견을 고집하고, 나뉘었기 때문이다.
 - 2. 신성한 교통에 제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 지켜지고 사역의 일은 계속 전진한다. 모든 것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교통이다 — 엡 4:11-12, 비교 겔 47:9.
- G. 교통은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 놓고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 행 2:42, 요일 1:3, 고전 1:9, 3:6, 12.
- H. 결국 교회와 신성한 삼일성은 교통 안에서 하나이다 — 요 14:21, 23.

VI.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네 가지 중요한 것 —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교통, 신성한 빛,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 으로 된 순환을 계속 체험한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신성한 생명이 자라 단계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 — 요일 1:1-9, 히 6:1, 엡 4:13.